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모세오경을 지나 역사서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눅 24:44)

새가족 환영회

일시: 2023년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대상: 22년 12월~23년 2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교회설립 70주년 청년 부흥의 날 찬양팀 세미나

일시: 3월 18일(토) 오후 2:00~5:00

장소: 제 2교육관 4층 (한나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 구호헌금 및 1차 송금 안내

성도님들의 지진 피해 긴급 구호헌금 39,816,000원을 3월 7일(화)에 「사감과 섬김」을 통해 1차로 송금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속해서 구호헌금을 접수하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하나은행 225-910071-95904 / 대한예수교장로회충현교회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 과거 역사 자료 수집

수집자료: (1) 1978년 이전 “교회 주보”

(2) 1975년 이전 “교회 수첩”

(3) “충현10년사” 원본 책

(4) “충현20년사” 원본 책

수집기간: 2023년 2월 26일(주일)부터 3월 26일(주일)까지

자료접수: 70년사 편찬위원회 (선교관3층 303호)

담당: 정인선 권사 010-3800-2240

※ 원본 자료는 스캔 작업 후에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배려가 있는 주차 안내

1. 본당 앞마당 및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즉시 이동하기!**
2. 통로 주차 시 **기어는 중립,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기!**
3.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4. 예배 후 **30분이 지나면 다음 예배로 인한 통로 주차로 출차가 어려움!**
5. 교회 주변 **이면도로 및 거주자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기(과태료 부과됨)!**

※ 중직자는 제2교육관 지하 3층과 4층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강해(1~3장)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금요집회 시리즈 설교로 로마서 강해(1-3장) 학점제를 진행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강해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3월 17일(금)	로마서 강해(6) / 롬 1:26-32	4월 28일(금)	로마서 강해(9) / 롬 3:9-20
3월 24일(금)	로마서 강해(7) / 롬 2:1-11	5월 5일(금)	로마서 강해(10) / 롬 3:21-26
4월 21일(금)	로마서 강해(8) / 롬 2:17-29	5월 12일(금)	로마서 강해(11) / 롬 3:27-31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교인 헌혈**을 실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를 돕는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헌혈 일시: **3월 12일(오늘), 19일(주일), 26일(주일) 10:00~16:00**

헌혈장소: 본당 앞마당 헌혈대상: 사전 신청자 및 헌혈 희망자(현장 접수 가능)
문 의: 오종학 안수집사(010-2744-2755)

※ 헌혈 기념품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수술비 적립을 위한 기부권으로 제공됩니다.

※ 헌혈증 기부도 가능합니다

지난 주일(3월 5일) 설교 되새기기

불평과 원망이 깊어지면 생기는 일

(민수기 15:37-41)



세상의 창조와 관련한 ‘창세기’,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의 탈출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인들의 제사를 다룬 ‘레위기’와는 달리, 제목에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은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어 보이고, 버려진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광야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에는 고난과 축복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곳이었으며,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시는 곳이었습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세 가지 유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불평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원망하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원망과 불평의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함입니다. 광야에서 이러한 불평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생겼습니다. 부족함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때를 통하여 고기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두 번째 이유는, 방향과 목표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자신의 설계대로 진척되길 소망합니다. 목표에 대한 속도나 방향이 기대와 어긋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직진하여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진하면 20여일 남짓 소요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을, 시내 산으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 길을 따라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직진하게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목표에 대한 속도나 방향이 기대와 어긋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상실될 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기에 취할 수 없는 땅’이라는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모습으로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불만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는 방식 : 탐욕, 악평, 음행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말씀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여 지금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시다면, 애교 정도에서 그치셔야 합니다. 결코 불평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변하게 해서 안됩니다.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민11:34)”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했습니다.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곧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필요가 아닌 탐욕에 따라 불평했던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민13:32)”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악평으로 바뀝니다. 악평은 십계명 중 거짓 증언하는 죄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기에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끝판왕은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재미를 따라가는 것이 음행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출신의 선지자 발람을 통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꾀를 내었습니다. 겉으로는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음행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민수기에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최종단계가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생각도 우둔해집니다.

청색 끈, 언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억장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37-38절)” 옷단에 술을 달면, 그 부분이 매우 잘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색 끈을 매달게 되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잘 보이는 장치를 옷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39절)”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방종하거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장치가 청색 끈이었습니다. 신앙이 퇴보하거나 실족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청색 끈’이라는 기억장치를 옷에 달았습니다. 술에 달린 청색 끈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에 잘 띄는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청색 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언약을 기억하는 청색 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40-41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막중한 직분을 주셨음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를 위하여 ‘술에 매어 단 청색 끈’을 기억장치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성찬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술에 단 청색 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at Happens When the Complaints and Resentments Build Up

(Numbers 15:37-40)

Rev. Kyu Sam Han

Unlike 'Genesis'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f the world, 'Exodus' which recorded the escape of the Israelites from the slavery in Egypt, and 'Leviticus' which dealt with offerings of Levites, the theme of Numbers whose title does not reveal the theme is 'wilderness'. People compare the life to the wilderness, where there seems to be nothing and which is felt to be deserted. The wilderness to which God led the Israelites had double meaning of hardships and blessings. In Numbers, the wilderness was a place where God guided them even though there didn't seem to be the road, and it was also a place where God provided manna and quails even though there were no resources. It was the wilderness where God who protected and provided was revealed clearly. The wilderness can be a place of complaints and resentments, or a place of receiving God's navigations and blessings according to the attitudes and postures.

Three types of complaints and resentments

The Israelites complained in the wilderness rather than enjoying blessings. If we arrange them according to types, we can be aware of what causes resentments. The first reason for complaints and resentments revealed through Numbers is the lack. These complaints in the wilderness occurred when they had no water to drink and no food to eat. In response to the Israelites' resentments caused from the lack, God provided them with water and manna. God provided them with meat enough for them to eat fully through flocks of quail. The second reason for complaints and resentments was the frustration for the direction and the goal. Everyone hopes his/her life proceeds as he/she lays it out. When the direction or speed toward the goal is out of the expectations, complaints and resentments can occur. The Israelites wanted to head straight in the wilderness. However, God made them take a roundabout way to Mount Sinai, even though it took around 20 days if they went straight from Egypt to Canaan. Moreover, God made them go around the land of Edom and detour along the road to the Red Sea. The Israelites who could not understand the will of God were to complain and resent. There is time when God makes us also detour in our lives. Rather, it is rare for God to make us go straight. When the direction and the goal are out of our expectations, complaints and resentments of the Israelites can also happen to us. Third, when the goal is lost, complaints and resentment arise in our hearts. When those who explored the land of Canaan and came back reported that 'The land is good, but the people living there are powerful so that we cannot take the possession of the land,' the Israelites complained rebelliously. They even advanced to the complaint that they choose a new leader taking place Moses and Aaron and go back to Egypt. It was because they had created in their minds an illusion that I could do better if I did it.

The way complaints and resentments are revealed: greed, bad report, fornication

Since complaints and resentments tend to be common to everyone, we don't need to regard them strange. Rather, we can enjoy the blessing that faith comes back to its original place quickly through Words. I hope you remember that the life without complaints and resentments is not possible, but the strength of the Words overcoming it is much more forceful. "So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Num14:28). God said He would do as the complaints and resentments were heard in His ears. Perhaps, if you have complaints and resentments in your life right now, you should stop them at the level of displaying your charm. You should never allow complaints to transform the basic shape of your life. "Therefore the place was named Kibroth Hattaavah, because there they buried the people who had craved other food." (Num 11:34).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complained saying that they wanted to eat meat. Listening to this, God immediately sent them quail, but gave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complained according to their greed, not to their necessities. That's why we should check whether there is greed in complaints and resentments. "And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Num 13:32). If complaints and resentments continue, they are transformed to be an evil report beyond the fair criticism. A bad report is serious because it has a similar feature to the sin of bearing false witness among Ten Commandments. Lastly, fornication was the final acme of resentments and complaints of the Israelites living in the wilderness. It is not revealed properly in Numbers, but it is a very important part. The Bible says fornication is spiritually leaving God and following the values of the world. It is fornication to follow one's own greed and pleasure, not God who guides by a pillar of cloud and a pillar of fire. Balak, a king of Moab tried to put a curse on the Israelites who were to pass through his own territory through a prophet of Moab Balaam, but God did not allow it. Then Balaam used a trick. He did not curse superficially, but in fact he opened the way for Israelites to be destroyed, that is, the way for them to fornicate. Eventually, the Israelites are to be judged by God due to their fornication, and from this point on, stories of complaints and resentments no longer appear in Numbers. It's because the last stage of complaints and resentments is fornication. You are to leave God, your heart is to become dark, and your thoughts are to become dull.

Blue cord, the reminder to keep the room for the covenant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Throughout the generations to come you are to make tassels on the corners of your garments, with a blue cord on each tassel.' (Num15:37-38). If you make tassels on the corners of your garments, that part comes in sight clearly. In addition to that, if you tie a blue cord to tassels, it becomes more visible. God made the Israelites put visible device on garments. "You will have these tassels to look at and so you will remember all the commands of the Lord, that you may obey them and not prostitute yourselves by chasing after the lusts of your own hearts and eyes." (Num 15:39). The blue cord was the remembrance device which prevents people from chasing after the lusts of their eyes and prostituting themselves. The reason the faith degenerates or the reason we fall away is that we are not awake. If you are not spiritually dark but awake, you can overcome complaints and resentments. I hope you remain resolute to be always awake in order to live a good life of faith. Offering this resolution to God, the Israelites attached 'a blue cord' a remembrance device to their garments. Even though it is not a blue cord on each tassel, we also need a visible remembrance device today. I hope our church will be the very blue cord. I hope the worship at the church I admire and the church where Jesus is present during the worship service can be the blue cord which makes us remember the covenant. "Then you will remember to obey all my commands and will be consecrated to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to be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Num 15:40-41). We should remember we are saved children of God. As to the world, we should also remember we have been given the weighty office of the ambassador of God. And we should remember the covenant that God has made us His inheritance. Numbers records that for this, 'a blue cord on each tassel' was made as a reminder. We also need such a reminder. Sacrament is one of them.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rough a 'blue cord on each tassel' which God shows us, the spiritual eyes that can see Jesus will be open.

영역·이울의



2023 고등부 겨울 수련회

2023년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 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팀이라 하루 먼저 기도원에 왔었다. 먼저 선발대로 왔을 땐 '내가 진짜 기도원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수련회 첫날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동회도 재미있었고, 부흥회도 은혜롭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 것 같다. 둘째 날에는 코스워크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밥이 맛있었다! 둘째 날 부흥회 때는 처음부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가 계속 아팠지만 은혜롭고 또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목사님 옆에 바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처음 받는 안수기도라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기도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다음 여름수련회도 많이 기대된다.

1학년 김시은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의 수련회 중 첫 번째는 중1때의 여름수련회이고, 두 번째는 고2 겨울수련회가 될 듯 합니다. 중1때 여름수련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였기에 좋은 추억들이 많았지만, 정작 저녁 집회 때는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그 때와 다르게 집회를 통해서 많이 울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인 무릎을 굽혀서 기도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은 서로 공감을 하고, 고백을 드리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찬양팀으로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학생회 임원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헬퍼 선생님들의 배려와 사랑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침반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이수현

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합심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릎 꿇은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릎 아래쪽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처음으로 울었는데 무릎이 아픈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기도 하면서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겼보다 더 아팠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니 생각보다 많이 버틸 수 있었다. 두번째로 울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기도 제목이었을 때였다. 고3이라는 지위 아닌 지위도 나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거란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울컥했다. 나를 위해 항상 희생하시는 부모님, 응원하는 형들과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다. 세번째로 울었던 것은 고3 친구들과 모여서 합심기도를 했을 때였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련회에 참여했을 거란 생각을 하니 학원을 이유로 오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이런 친구들과 나에게 수능이라는 인생에서의 첫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의미 있었던 수련회였다. 여름수련회 참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쩌면 고등부 수련회의 마지막이 될수도 있다. 또한 이제까지 수고한 나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면서 앞으로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나에게 이번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안식처였다.

3학년 최필규



사실 그동안 저는 교회에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에 맞춰진 삶이 너무 편해서 학교 가듯이 교회를 갔고, 찬양대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재능이 있었으니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제가 2박 3일 동안 학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노는 곳이었고, 게임들은 재미있었으나 부흥회 시간은 너무 길고 졸립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부흥회 시간, 특히 기도시간이 너무 기다려졌고, 무릎 꿇어서 다리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울면서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러내는 것 처음이었고, 고1때는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형 누나들이 신기했고, 고2때는 나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왜 이제야 만나 뵈게 되었을까 후회도 되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설교를 준비해주신 목사님, 본인들 시간 쪼개면서까지 봉사하러 와주신 선생님들, 게임 준비하느라 고생한 학생회와 학생회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3학년 노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청년1부 Build Us의 수련회가 2.23(목)~26(주)까지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قم"이라는 주제로 충현기도원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قم, 빌더스와의 사랑의 사قم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청년1부 수련회는 처음 팀장을 맡고 첫 수련회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어렵게 시간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이러한 걱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수련회 기간 동안 공동체를 향한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사개편 후 선배들의 빈자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도 곳곳이 하는 지체들을 보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주신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98 장효민 자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빌더스 지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동기들과도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قم"이라는 주제를 통해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입증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고 수련회를 위해 많은 지체들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빌더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3 이원석 형제

한 번도 수련회에 가 본 적이 없어 수련회 참여를 많이 망설였지만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ق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사قم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석하게 되었다. 나의 걱정과는 달리 부흥회를 비롯한 수련회 전반적인 시간에 주 안에서 청년 1부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끼며 많은 지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한일서 말씀 중 4장 20절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와 닿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각 지체마다 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 놓고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겠다고 다짐하게끔 만든 구절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다. 요한일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사랑의 사قم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04 이송미 자매





청년3부 겨울 수련회

청년3부 겨울수련회가 2월 28일(화)부터 3월 1일(수)까지 1박2일 동안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주제로 충현 기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3부 온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됨을 누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3부 새로 부임하신 박요셉 목사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1박 2일 겨울수련회! 말씀이 갈급하던 저에게 당일 교회 대신 기도원 수련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가기 전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흥회 말씀은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릴 때 흥얼거려던 흥겨운 멜로디의 찬양 곡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설교를 들으며 그 의미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목전에 두고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릴만큼 두려운 상태에서 하박국은 비록 모든 것이 사라져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확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 중 한 가지만 없어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에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져도 너는 과연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부모님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손에 쥐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즐거워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기도회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박국 말씀은 저의 마음판에 새겨져 오래 오래 기억날 것입니다.

안유리

결혼 후 청년부에 출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였던 수련회. 이번 겨울수련회는 저에게 충현교회 청년부 첫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이라는 두근거림과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하였던 이번 수련회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외부환경과 사회를 탓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위 환경의 부조리함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의 수련회 자리가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청년부 순장이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백

시작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수련회였습니다. 찬양팀 엔지니어로 참석한 겨울수련회라 시작 전부터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라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잘 준비해서 찬양팀이 수련회를 잘 섬기고 잘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를 멈추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수련회 직전에 기도하며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게 만드셨습니다. 수련회 날이 되어 사람들이 모였고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3부 회원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닭을 수십 마리나 직접 튀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모든 순서를 섬겨 주신 면려회도 고맙고, 여러 모습으로 섬긴 순장, 목장님과 교사회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걱정하고 불러 모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천영

10기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며



매일의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맸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남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중보기도가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함몰되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로 믿고 나가는 사역을 통해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날 헌신의 날에는 기도응답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만찬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훈련을 통해 새 힘 주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승민(2교구)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기도를 하면 내가, 내 가족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그 행위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전예준(교동부)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또한 4주 교육을 잘 마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이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신자의 날”이었다 두 분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나도 2월 5일 주일에 기도카드 2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하나는 친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를 위한 것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조카는 공황 장애의 80%가 나았다고 한다. 너무나도 신기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임선희(1교구)

마더와이즈 <회복> 저녁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긴 코로나를 지나 회복이 필요한 모든 마더들 대면으로 저녁에 만납니다!

1. 시간 및 일정

훈련기간 : 3월 21일(화)~5월 2일(화) 7주 과정

모임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2. 현장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모임장소 : 1교육관 502호

3. 회 비

- 4만원(교재 포함) 본인 이름으로 입금
- 3333-02-9538139 카카오톡 박은영

4. 신청기간

3월 12일(주일)~3월 19일(주일) 8일간

5. 신청링크

QR 코드를 통해 연결됩니다.

6. 문의

박은영 집사 (010-9252-3483)

* 회비를 함께 입금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9기 마더와이즈 회복



2023년도 이,미용 강습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자 : - 본 교회 등록교인(59세까지)

- 수료 후 이,미용팀에 합류하여 봉사할 수 있는 성도

교육 일시: 2023년 4월 7일 ~ 6월 30일까지 (12회)

교육 시간: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교육 장소: 엠마오 홀

강 사: 이상영 미용장 (특별 외부강사, 교육 훈련 전문가)

모집 인원: 20명 선착순

접 수 처: 전도위원회

- 이미용 팀장 박정례 집사(010-7579-1954)

- 전도위원회 간사 김혜란 권사 (010-9323-0861)

접수기간: 2023년 3월 12일 ~ 3월 26일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총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총현기도원 주방장 모집

대상 : 세례교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교인은 담임목사추천서 각 1부
문의처 : 총현기도원(031-766-5425)

총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총현 Awana(어와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 간 : 3월 24일(금)-6월23일(금) 12주 과정
대 상 :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모임 시간 : 매주 금요일 19:10-21:00
모집 기간 : 3월 12일(오늘)까지
*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3월 정기 당회

일 사: 3월 12일(오늘) 찬양 예배 후

3월 권사회 월례회

일 사: 일사: 3월 22일(수)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금주 단기선교 파송 (인도네시아 1팀)

선교지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인도네시아 스마랑	박진수 안수집사 외 10명	3월 13일(월)~3월 20일(월)

예배 담당(3/15~3/19)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3/15	수요 I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수 9:11-15) 김유석 목사	권혁근	김미정
3/17	금요일집회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쓰며 (롬 1:26-32) 한규삼 담임목사	이기영	
3/19	주일 I	야간의 죄, 나도 지을 수 있습니다 (수 7:1-26)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신현욱
	주일 II		윤성복	임병익
	주일III		전영재	박노익
	주일찬양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호 1:2-9) 이다현 목사	김주한	송병열

교구별 주력새벽기도(3/13~3/19)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3(월)	윤준식/김길남	마 20:17-34	5교구
14(화)	한규삼/최규욱	마 21:1-11	전교인
15(수)	김상래/구승희	마 21:12-22	전교인
16(목)	김주한/김정현	마 21:23-32	11교구
17(금)	박동진/박영섭	마 21:33-46	2교구
18(토)	권순동/권순동	마 22:1-14	전교인
19(주)	임대영/임대영	마 22:15-22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 집 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 이다현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2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12:20~13:30(에스라) 12:40~13:40(이블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0535	이윤재	중등부	
2	22-0830	허유진	중등부	
3	22-1635	신혜지	유년부	
4	22-1972	조재윤	유년부	
5	23-0070	이승하	중등부	
6	23-0071	이민아	중등부	
7	23-0332	민지안	유치부	
8	23-0337	방원준	고등부	
9	23-0444	황이서	영아부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65	이혜인	청년2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56	고일	기본과정	
2	23-0457	이치복	기본과정	
3	23-0462	김민선	기본과정	최종란
4	23-0463	한정원	청년1부	최종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32	김준희	기본과정	김예랑
2	23-0451	박상금	기본과정	
3	23-0452	박태선	기본과정	이영호
4	23-0454	한홍희	기본과정	
5	23-0455	임진영	기본과정	
6	23-0458	김미영	기본과정	
7	23-0459	김일권	기본과정	
8	23-0461	손천수	기본과정	안혜영
9	23-0464	김준성	기본과정	

결혼

1. 고명준 군(고면주 집사-이춘례 집사의 아들, 7교구)과 박서영 양(박영구 씨-차 미자 씨의 딸) / 18일(토) 16:40 더컨벤션 잠실점 3층 아모르홀
2. 조학동 군(조순표 성도·고성미 성도의 아들)과 김지혜 양(최영순 집사의 딸/브릿지, 9교구) / 18일(토) 13:00 총현교회 갈릴리홀

별세

1. 김준희 성도(김예랑 성도의 부친, 10교구) / 4일 별세, 6일 장례
2. 장응태 성도(장은숙 집사의 부친, 6교구) / 4일 별세, 7일 장례
3. 손준규 은퇴집사(정우남 은퇴권사의 남편·손주호 성도의 부친·배맹림 성도의 시 부, 7교구), (손민호 집사의 부친·이영아 집사의 시모, 6교구) / 5일 별세, 8일 장례
4. 윤명노 타교성도(옥인수 집사의 장인·윤미경 집사의 부친, 4교구) / 7일 별세, 10 일 장례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중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연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임시서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등록부장	전성욱 이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뱌엘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재자교육훈련부장	이서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서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강성은 선교위원장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유치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정생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형화